

PEOPLE

2025년 4월 17일 목요일



박재완 (주)한영타이어 대표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부

박재완 (주)한영타이어 대표가 최근 화순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16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기탁은 박재완 대표가 2023년에도 같은 금액인 500만원을 기부했고, 올해 또다시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참여했다. 박재완 대표는 10여년 넘게 꾸준한 기부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사회 곳곳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한영타이어는 지난 2000년 화순군 도곡농공단지에 입주한 국내 2위 재생타이어 제조업체로, 2022년도에는 기술경쟁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전남도 스타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박재완 대표는 “도곡농공단지에서 20년 넘게 사업을 이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의 관심과 응원 덕분이다”며 “지역과 함께 성장한 만큼, 앞으로도 나눔을 통해 그 고마움을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화순=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진도, 임신·출산 축하물품 전달 자연산 돌미역·육아용품 등 지원

진도군은 최근 임신부 가정에 임신·출산 축하 물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자연산 돌미역과 출산 축하 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출산 축하 물품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첫째가 출산 가정에는 이유식 밥술, 둘째가 이상 출산 가정에는 자동차용 어린이 의자(카시트) 또는 유모차, 유아용품(다둥이 해피박스)을 진도군 보건소에서 출산 가정에 직접 방문해 지급한다. 또한 산후 조리비 확대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진도=서석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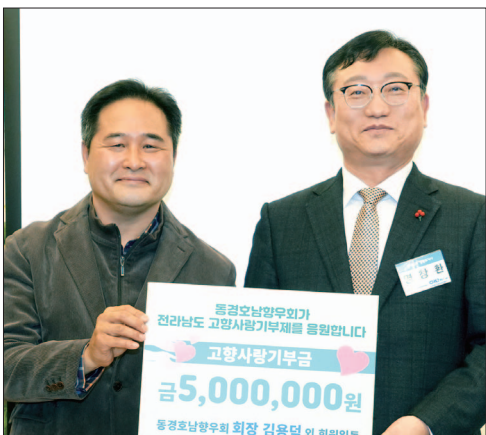
농협 전남본부 고흥 스마트농업 현장 방문

농협 전남본부는 16일 고흥군 소재 보급형 스마트팜 농가를 방문해 스마트농업 현장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 관내 시군지부장과 지사부소장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급형 스마트팜 도입·확대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스마트농업의 효과를 현장에서 확인했다. 또 홍양농협의 스마트팜 지자체 협력사업 우수사례를 청취하며, 시군별 확산 가능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스마트팜에서 재배 중인 오이 수확 작업에 참여해 일손을 보했으며, 영농폐기물 수거활동도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전남 발전 위해 써달라” 해외서도 이어지는 고향사랑기부

김용덕 동경호남향우회장 기탁
500만원 전달...명예의전당 헌액
매현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참여
장종섭 중상해이사 300만원 기부

지난해부터 중국과 일본을 방문해 고향사랑 실천 캠페인 활성화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전남도에 고향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해외 향우와 출향민의 고액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평소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준 김용덕 동경호남향우회장이 500만원, 장종섭 중국상해 (사)매현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이사가 300만원을 기탁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김용덕 회장은 “고향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탬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린 시절 저를 지켜준 고향을 항상



명칭한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김용덕 동경호남향우회장으로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받고 있다.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작게나마 보답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힘들고 어려운 경이에도 우리나라와 전남도에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기부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먼 곳에서도 항상 마음 한 켠에 고향에 대한 인연을 간직하면서 응원해주는 사랑에 보답하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사)매현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장종섭 이사(왼쪽에서 두번째)로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록 기금사업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를 제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되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금은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된다.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iloovegohyang.go.kr), 액티부기(놀고판), 국민은행(KB스타뱅크), 기업은행(I-ONE Bank), 신한은행(신한SOL뱅크), 하나은행(하나원큐)에서, 오프라인에서는 NH협은행 방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하다. 이현규 기자 gnnews1@

“미래와 꿈 위한 사회적지지 체계 강화”

월드비전 광주전남본부, 가족돌봄청소년 지원금 2억원 전달
광산구 등 민·관 협업 확대...진로인성교육 등 6개 사업 추진

월드비전 광주전남사업본부는 지역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해 광산구에 지원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정병원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광주전남사업본부장, 박병구 광산구청장, 송광(관장 김재진) 천다(관장 문필동) 행복드림(관장 이현숙) 등 3개 광산구 종합사회복지관, 박미옥 광산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월드비전은 지난해 6월 광산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족돌봄청소년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질병, 장애, 중독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지난해

105명에 78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했다. 올해 월드비전은 사업비 후원, 복직관, 학교 등의 참여로 총 6개 사업을 진행해 109명의 가족돌봄청소년 및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한다. 생계비를 지급하는 통합지원 사업을 비롯해 자아탐색, 자기성장계획 세우기 등을 돕는 진로 인성교육 및 꿈 지원(꿈다자이니), 인문 어학, 사회경제, 공학 기술, 예술 문화 등 분야별 전문 직업인과 청소년을 연결해 맞춤 상담(멘토링)을 제공한다. 꿈 실현 지원(꿈나개클럽) 사업 등이 추진한다. 광산구 학교와 협력해 등교 전 청소년에게 아침 식사를 지원하는 아침머고, 주말 식사 돌봄을 받기 어려운 아동에게 주말 두 끼 가정식 도시락을 지원



월드비전 광주전남사업본부는 지역 가족돌봄청소년을 위해 광산구에 지원금 2억원을 전달했다.

하는 주말에 뭉치며 등교 운영한다. 박병구 광산구청장은 “가족 부양의 책임을 떠안은 가족돌봄청소년이 자신을 돌볼 여유를 찾고, 미래와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사회적지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ljh415@gwangnam.co.kr

광주창경센터, 광주역 창업밸리서 창업포럼

‘인공지능 허와 실’ 주제 명홍철 ㈜넛은 대표 등 강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최근 광주역 창업밸리의 첫 번째 인프라 스테이지(STA·G)에서 ‘4월 광주창업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창경센터는 지역 창업 지원의 허브 역할을 하며, 지역 창업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매월 정기적으로 열리는 ‘광주창업포럼’은 창업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소통과 성장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포럼은 ‘AI 활용의 허와 실’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강연, 스타트업 초청 강연, 참석자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에 따른 데이터 윤리 및 AI 기본법의 중요성을 다룬 강연이 진행됐다. 전문가 초청 강연은 강성관 스마트인재개발원 부장이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윤리 및 AI 기본법’을 주제로 진행했다.



강 부장은 AI 활용의 이점과 위험성, AI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등 AI 기본법에 대해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하며, 창업자들이 데이터 윤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법적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돕는 유익한 내용을 제공했다. 스타트업 초청 강연에서는 명홍철 ㈜넛은 대표가 AI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전략과 실제 사례를 공유했다. 하상용 광주창경센터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창업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농협중앙회는 15일 농협 광주본부 대강당에서 호남권 농·축협 임직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농·축협 시설물 건립 및 재난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농협중앙회, 호남권 농·축협 시설물 건립·재난안전 교육

광주본부서 열려...임직원 120명 참여

농협중앙회는 15일 농협 광주본부 대강당에서 호남권 농·축협 임직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농·축협 시설물 건립 및 재난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재난사고로부터 임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고품질 시설물 건립을 위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실시된 이 교육은 5년 동안 총 1500여명의 전국 농·축협 임직원이 참여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재난안전 대응관리 방안 △안전관련 법령 및 지도 등 재난안전 관련 정보

△계약 및 공사관리 실무 △부동산 개발 및 건설이슈 안내 등 시설물 건립 관련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농·축협 임직원들은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안전관련 법령과 대응 관리방안을 쉽게 이해하고, 사업계획부터 계약·공사관리까지의 건설 전반적인 과정을 학습했다. 또한 질의시간을 통해 현업에서 겪은 어려움을 해소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안전을 동반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무 중심 교육을 확대해 임직원의 재난 대응 및 시설물 건립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동구,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직무교육 광주 동구는 16일 대회의실에서 2025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참여기관의 역할 등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광주시 동구



광주시선관위 ‘학교로 찾아가는 세내기 유권자 연수’ 운영 광주시선관위원회는 16일 푸른꿈정착학교 고등학교 2·3학년 45명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세내기 유권자 연수’를 실시했다.